



러시아 Russia



I. 투자환경위험 평가 결과

투자환경위험수준

보통



경제지표는 플러스 성장률 및 재정수지 흑자 유지, 낮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적인 대외 부채비율 등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투자환경위험 수준은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 지속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보통' 수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투자동향 10% 	국가위험도 40% 	투자여건 50%
------------------------	-------------------------	------------------------

평점기준



평점산출내역



분야별 평점(위험수준)



투자동향(10%)		요주의	국가위험도(40%)		양호	투자여건(50%)		보통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50.0점	62.0점	68.0점	40.5점	38.5점	35.0점	37.7점	43.6점	40.4점

종합평점(위험수준)

보통		보통		보통	
2017년		2018년		2019년	
40.1점		43.4점		41.0점	



II. 주요 시장 동향·제도 변화

<p>정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인한 대규모 시위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3월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7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푸틴 대통령 집권 4기 (~2024년)가 출범하였으나, 같은 해 하반기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2019년 8월에도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대규모 시위가 발생 •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여론조사기관인 '레바다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푸틴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2018년 4월 82%에서 연금개혁이 추진되던 동년 9월 67%로 하락한 이후 2019년 7월에도 68% 기록
<p>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경기 침체 및 대러 제재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둔화 (1.6%(17)→2.3%(18)→1.2%(19)),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은 감소(-1.5%(17)→2.3%(18)→0.9%(19)), 환율 상승과 부가가치세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상승 전망 (3.7%(17)→2.9%(18)→4.9%(19))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여전히 안정적 수준 : 34.7%(17) → 32.3%(18) → 35.7%(19)
<p>1.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규제)</p>	<p>악화</p> <p>서방의 대러 제재 지속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입액 지속 감소[U\$372억(16) → U\$260억(17) → U\$133억(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EU의 대러 제재 지속 및 확대로 인해 외국인투자 순유입은 큰 규모로 지속 감소 • 서방의 대러 제재에 따라 외국 기업들은 금융 거래나 에너지, 방위산업 및 석유개발 등의 프로젝트에 투자 제한 <p>동동러시아 지역에 경제특구 형태인 자유항 및 선도개발구역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18개의 선도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22개 행정구역에 자유항 제도 운영 • 동북아시아, 특히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 적극 추진
<p>2.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p>	<p>유지</p> <p>해외로 유출된 러시아 자본에 대한 사면기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유출 개인자산에 대한 자발적 신고시 사면기간을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연장 <p>환율 상승폭은 작지만 취약성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블화 환율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 6월 미 달러당 64.14루블을 기록하여, 지난해의 미 달러당 62.82루블에 비해 약 2% 상승 • 환율은 2018년 4월, 8월 서방의 대러제재 추가 발표 직후 급등한 이래, 취약한 상태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4월: 미 달러당 57.58루블(4월 6일) → 64.06루블(4월 11일), 2018년 8월: 63.54루블(8월 8일) → 68.22루블(8월 11일)로 변동



3. 조세제도 (법인세)

유지

법인세율 20% 유지,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

- 부가가치세율을 2019년 1월부터 기존의 18%에서 20%로 인상
 - 푸틴 집권 4기 주요 정책인 의료·보건, 교육, 인프라 부문 개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목적
 - 정부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를 연간 약 100억 달러로 전망

4.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개선

러시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범위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목적의 대출 하한선을 300만 루블(약 4만 7천 달러)에서 50만 루블(약 7,800달러)로 하향 조정('19년 6월 평균 환율 1달러=64.14루블 기준)

국제신용등급 상향조정

- Fitch는 2019년 8월 BBB-에서 BBB로 한 단계 상향 조정, Moody's도 2019년 2월 Ba1에서 투자적격 등급인 Baa3로 상향 조정

중앙은행은 2019년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두 차례 하향 조정

- 중앙은행은 2019년 6월과 7월 경기둔화와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따라 기준금리를 기존의 7.75%에서 7.5%, 7.25%로 각각 하향 조정

국가복지기금 운용을 통해 재정, 연금기금 지원 등으로 활용

- 2019년 4월 기준 국가복지기금은 589.6억 달러

5.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해고/ 노사관리)

유지

2018년 10월, 퇴직과 연금수령 연령을 늦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법 통과

-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연금재정의 어려움으로 현재 남성 60세, 여성 55세인 퇴직과 연금 수령 시기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남성은 2028년까지 65세, 여성은 2034년까지 60세로 상향 조정

실업률은 2019년 4월 기준으로 4.7%

- 실업률은 2017년의 5.2%, 2018년의 4.8%에 비해 하락 추세

최저임금 소폭 인상, 실질임금상승률 증가세 둔화

- 2019년 최저임금은 월 11,280루블(약 176달러)로 전년도의 11,163루블(약 174달러)에 비해 1% 인상 (2019년 6월 평균 환율 1달러=64.14루블 기준)
- 실질임금상승률은 2017년 2.9%, 2018년에는 8.5%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경기 둔화에 따라 2019년 1/4분기에는 1.3% 상승

6.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유지

유가 하락 추세에 따라 석유 및 석유제품 수출세 인하

- 2019년 9월부터 석유 수출세를 톤당 94.1달러에서 90.7달러로 3.6% 인하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제재로 인한 서방 및 우크라이나와의 교역 제한

- 크림반도 사태로 2014년 이후 러시아의 기업인들과 에너지, 군수, 금융 등 기업들에 대한 EU와 미국의 대러 제재 지속 및 확대
- 러시아 정부는 2018년 5월 '제재대응법' 제정을 통해 대러 제재에 참여하는 EU 회원국, 호주, 미국 등과 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등으로부터의 식료품,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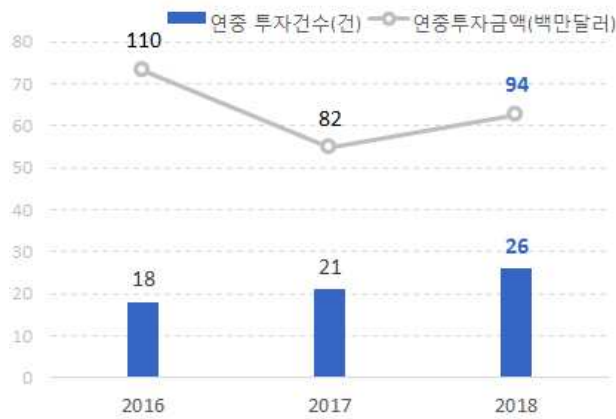
(붙임) 평가 분야별 세부내용



I. 외국인투자 동향

1. 직접투자 실적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 실적



투자누계

투자건수 누계

590건



투자총액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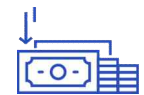
2,713백만 달러



주) 2005~2017년은 해당연도 실적, 투자누계는 2018년 3월말 기준 전체 누계 실적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 실적

대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실적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II. 국가위험도 평가

1. 국가신용등급

구분	2017	2018	2019.8
한국수출입은행	C2	C1	C1
OECD	4	4	4
Moody's	Ba1	Ba1	Baa3
Fitch	BBB-	BBB-	BBB*

*2019년 8월 기준

2. 단기유동성위험

구분	총외채/총수출 (%)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 (개월)	외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단기외채/외환보유액 (%)	ECA거래실적 (OECD)(%)
OECD권고	120% 이하	3개월 이상	15% 이하	100% 이하	-
2017	113.2	10.0	13.3	16.1	1.1*
2018	92.6	10.2	14.9	16.3	1.4**

자료) OECD

* 2017년 9월 기준

** 2018년 9월 기준

3. 단기유동성위험 진단점수

구분	수용위험 (계약실행 가능성)	이윤 송금위험	대외지급 연체위험
2018.5	2.5	3.0	3.0
2019.5	2.5	3.0	2.5

주) 1. PRS, ICRG 기준

2. 진단점수는 0~4점(0.5단위) 체계로 0은 '매우 높은 위험', 4점은 '매우 낮은 위험'을 의미함



Ⅲ. 투자여건 평가

1. 기업경영여건

	구분	순위	
		2017	2018
1	창업(Starting a Business)	28/190	32/190
2	건축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115/190	48/190
3	전력수급(Getting Electricity)	10/190	12/190
4	재산등록(Registering Property)	12/190	12/190
5	신용획득(Getting Credit)	29/190	22/190
6	소액투자자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51/190	57/190
7	조세납부(Paying Taxes)	52/190	53/190
8	대외무역(Trading Across Borders)	100/190	99/190
9	계약실행(Enforcing Contracts)	18/190	18/190
10	사업청산(Resolving Insolvency)	54/190	55/190
	종합순위	35/190	31/190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 글로벌경쟁력 지수

	구분	순위			구분	순위	
		2017				2018	
1	제도(정책, 시스템)	83/137		1	제도(정책, 시스템)	72/140	
2	인프라스트럭처	35/137		2	인프라스트럭처	51/140	
3	거시경제 안정성	53/137		3	ICT 도입	25/140	
4	보건·교육	54/137		4	거시경제 안정성	55/140	
5	인력관리(연수)	32/137		5	보건	100/140	
6	상품시장 효율성	80/137		6	기술(교육)	50/140	
7	노동시장 효율성	60/137		7	상품시장	83/140	
8	금융시장 발전수준	107/137		8	노동시장	67/140	
9	기술수준	57/137		9	금융제도	86/140	
10	시장규모	6/137		10	시장규모	6/140	
11	기업 발전수준	71/137		11	기업 역동성	51/140	
12	R&D 혁신	49/137		12	혁신 역량	36/140	
	종합순위	38/137			종합순위	43/140	

자료)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3. 시장동향·제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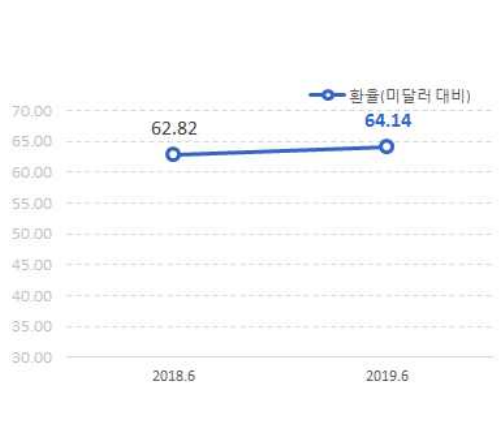
정성평가

종전평가 대비	평가				
	매우개선	개선	유지	악화	매우악화
투자정책				✓	
외환제도			✓		
조세제도			✓		
금융제도		✓			
노동제도			✓		
무역제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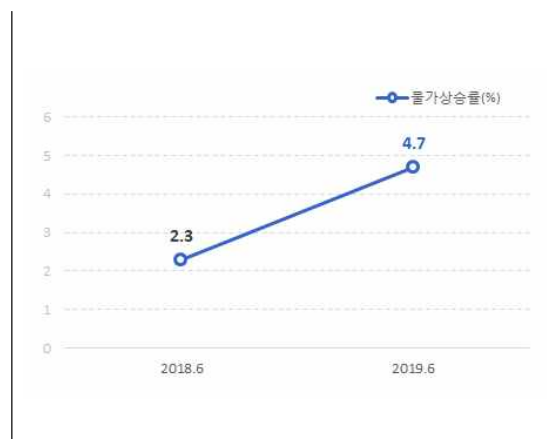
주) 종전 대비 변동내역 및 현 수준 평가

정량평가

환율(미달러대비)



물가상승률



2018.6	2019.6	증감률
62.82	64.14	2.1%

주) 해당월 평균 환율

2018.6	2019.6
2.3%	4.7%

주) 전년 동월 대비 변동